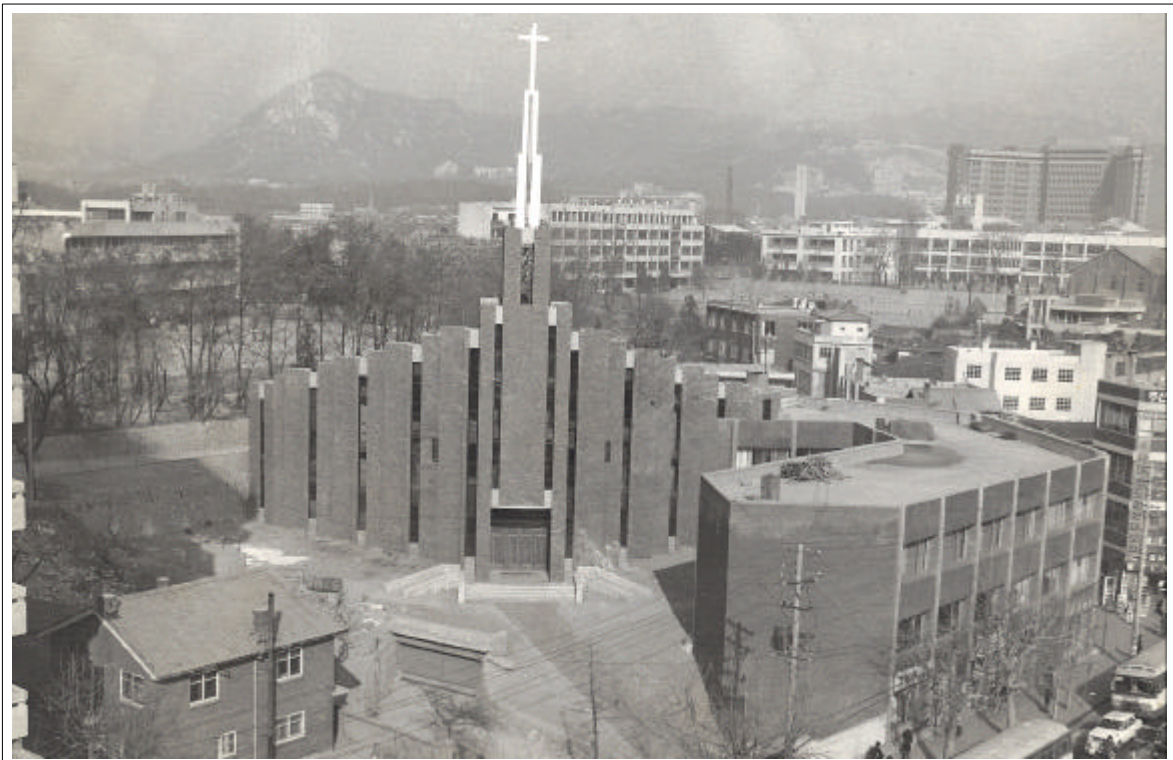


제 6 편 확장기
김형태 목사 시대 (1967~1989)



김형태 목사

선친에 이어 5형제 목사가족 총회장 지낸 제4대 원로목사

1968년 6월 16일 김형태 목사가 위임목사로 부임했다.(임시목사 취임은 1967년 12월 10일)

1929년 2월 27일 경북포항에서 김은석 목사의 6남1녀 중 셋째로 태어나 서울신학대

학과 장로교총회신학교(현 장신대)를 졸업하고 1954년 경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

았다. 조부(김영옥 목사)와 부친(김은석 목사)으로부터 3대가 되고 6형제 중 5형제(형철·형일·형태·형달·형숙)가 목사이다. 1957년 샌프란시스코신학교에서 문학석사를 취득하고 대구신학교 교수와 대구제일교회 임시목사를 역임한 뒤 연세대학교 교목 겸 신과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재직 중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핏츠버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7년 결혼한 방순영 사모와의 사이에



회갑 때 가족사진 - 1989



2남2녀를 두었다. 김형태 목사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본·이란·서독·오스트리아·우간다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구역회 운영 및 제반 교회 학교 교육과 장학회 설치, 월간지 발간, 80년사 및 90년사 저술 등 내적 성장에 몰두했다. 밖으로는 민주화·통일·평화·세계교회 일치 운동에 앞장서고 지금의 교회당을 봉헌하는 데 헌신했다. 1987년 제72회 총회에 서 총회장으로 피선되고 2년만인 1989년 연동교회를 사임한 뒤 1991년 10월 20일 원로목사(제4대)로 추대됐다.



독일 투빙겐대학 올겐 몰터만 박사 내방(창립 90주년) - 198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2대 총회장 당선 - 1987



조선기독교연맹 고기준 목사(남북기독자회의 : 스위스) - 1988



스코트란드교회총회 지도자들과(에딘버러) - 1987



원로목사 추대(추대패를 읽는 이성희 목사) - 1991



교회기념 강연회(소예배실) - 1999



저서(1990-1999)

성탄절 음악예배

성탄절에 여자 성가대원은 한복 입어
66년 2부성가대 86년 3부성가대 탄생



성탄절 음악예배 기념(지휘: 신경욱 집사 · 반주: 김명숙 성도) - 1967
앞줄: 정선주 · 김혜숙 · 김양숙 · 임명재 · 신경욱 · 김형태 · 신영목 · 허재철 · 황운연 · 방정현



성탄절 음악예배 기념(지휘: 박명섭 성도 · 반주: 유수경 · 황혜영 성도) - 1978
앞줄: 정인용 · 박명덕 · 이상학 · 한용석 · 이종진 · 이열희 · 정원식 · 박명섭 · 황태주 · 김봉환 · 진영득 · 유수경 · ○ · 유낙신

사진 설명은 1977년 12월 24일(토) 음악예배 내용을 소개함. 이날 저녁 제1부 예배에 이어서 부른 곡목은 제2부 합창(캐롤) : ①장식 하세 ②아름다운 종소리 ③동백나무꽃 ④Holy City 외 독창. 제3부 ①솔로: 메시아 ②합창: 메시아 대망 ③독창과 합창: 목자들과 기쁜소식 ④중창과 합창: 박사와 별 · 탄생 등이었다. (지휘: 김경남 성도, 반주: 유수경 · 황혜영 성도)

중 · 고등부 성가대

중등부성가대 다곡목 확보 고등부성가대 칸타타 시도



성탄절 음악예배 기념(지휘: 박창범 · 반주: 이민우) - 1967
 앞줄: 박종근 · 이봉자 · 정선자 · 이은성 · 김형태 · 허재철 · 주복덕 · 양효숙 · 차규장 · 김종문



중등부성가대 - 1968



고등부성가대 - 1968

1968년 12월 18일 오후 7시에 중등부 권성욱 회장의 기도와 이해련 부회장의 성경봉독(눅 2:8-14)에 이어 허재철 목사의 설교(참된 평화의 선포)로 예배를 드리고 제2부 음악순서에 들어갔는데 합창곡목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 흰 예복 · 탄일 밤 · 크리스마스 나이팅게일 · 신의 영광 · 크리스마스 중 · 주기도문(사진 아래 왼쪽)
 △고등부: 주 나신 밤 · 땅에 평화 · 주 이름 찬양해 · 구주 오늘 나셨네(사진 아래 오른쪽)

지휘: 박창범(중) · 신경태(고)
 반주: 강경숙(중) · 이민우(고)
 끝으로 중 · 고 연합성가대는 할렐루야(헨델 곡)를 합창했고 대광중고등학교 성가대의 찬조출연과 김현숙(중)의 피아노 독주가 있었다.

장로 장립(1)

상 : 정인용 · 박상덕 · 한용석 · 장병건 장로 1968
 중 : 윤희영 · 이도원 · 김봉환 장로 1969
 하 : 김봉서 장로 1971 / 양한모 장로 1974



① 장병건 장로 ② 박상덕 장로 ③ 정인용 장로 ④ 한용석 장로



(합성사진) ① 이도원 장로 ② 김봉환 장로 ③ 윤희영 장로



① 양한모 장로



(합성사진) ① 김봉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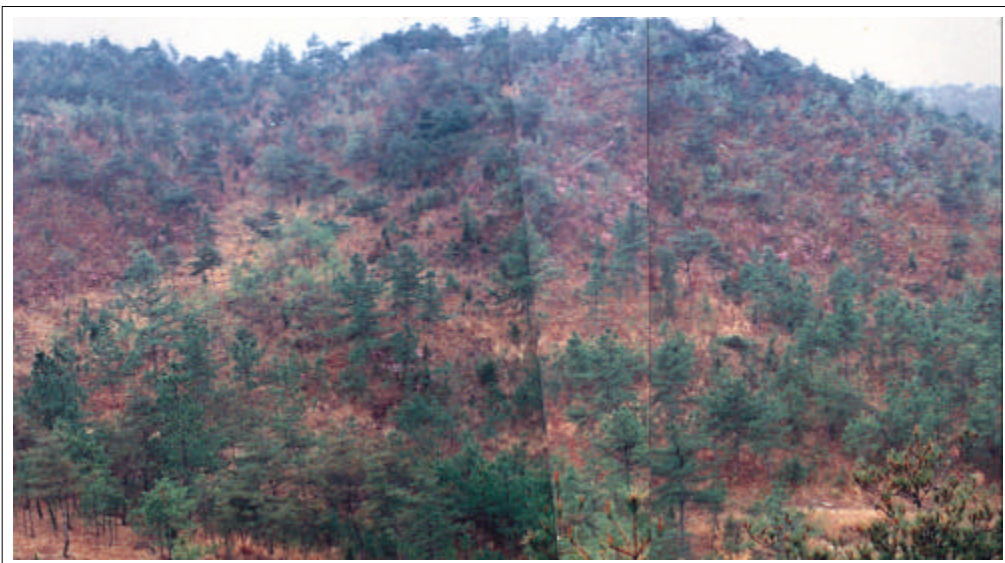
수양관

첫번째 광릉 : 가파른 경사와 북서향 두번째 포천 : 주민의 반대와 식수난



광릉

1969년 4월 18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산 94번지 임야 7천680평을 수양관 부지로 계약, 교인 유지들의 기금 72만9천6백원으로 매입했다. 교회모지가 인접한 이곳에서 동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2개의 천막을 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기 수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지형이 가파른데다가 북서향이고 산사태로 수양관을 짓기에 부적합하다는 중론이 모아져 '광릉수양관' 이름만 남긴 채 제2의 장소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포천

1984년 3월 1일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산 37-1번지 임야와 전답 등 4만1천247평을 8천750만원에 매입하고 한정섭 교수(여섯번째 교회당 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층이 지하수를 팔 수 없는 암반인 것과 인근 주민들이 건축을 반대하고 진입로 공사에 수십억원이 든다는 계산으로 먹을 물과 들어갈 길과 이웃사촌 등의 난관에 부딪쳐 '포천수양관'도 꿈만 부푼 채 공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강화

1989년 7월 14일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760-6·7번지 임야와 대지 5천593평을 1억5천7백만원에 매입했다. 내가국민학교 고천분교 자리로 1천여평의 운동장과 63평의 단층건물이 있어 교실을 예배실과 침실로 개조하고 동년 10월13일 개관예배를 드렸다. 1990년 5월에 이르러 유지·보수 및 증축·신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강화수양관 관리위원회(위원장: 임연규 장로)를 조직했다.

화마가 휩쓴 교회당

증개축 봉헌 한달 만에
누전과 난로과열 공방

교회당을 증개축해 봉헌식을 거행한 지 한달 만인 1970년 12월 27일(주일) 예배와 공동의회(연말 예결산)까지 마친 오후 2시경, 교회당 천정으로 변진 불길의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지붕을 태우고 2층 예배실 160명 내부가 전소됐다. 다행히 교회당 지하 1층은 모면했고 재빨리 달려온 교인들에 의해 강단 성경·차임중·하몬드 오르간·피아노·역대목사 사진 등은 꺼냈다. 화인은 누전(교회 주장)과 난로과열(한전 주장)의 공방 끝에 화인불명으로 판정이 났다. 이듬해 1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복구하는 동안 예배처소는 근처의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강당을 사용했다.



(이은성 집사 촬영)



벽돌 하나 보존



종탑의 십자가는 그대로



화재로 날아간 지붕



어느 성도의 눈물기도

여전도회

창경원에서 야외예배 양효숙 전도사 송별



1971년 5월 어느날, 전필순 원로목사와 김형태 목사 및 강동수 부목사, 양효숙·조명숙 전도사, 그리고 진석오 원로장로와 김경호 장로 외 120여명의 여전도회 회원은 10여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창경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여전도회 회원 거의가 동원된 행사라 그 의의는 자못 큰 것이었다. 이 무렵 야외예배는 가까운 창경원이 단골이고 가장 먼 곳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의 밤섬이었다.



1972년 8월 21일은 양효숙 전도사 송별의 날이었다. 신의경 권사를 비롯해 여전도회 회원 20여명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32년 전 모습, 지금 그때를 "그리운 시절"이라 한다.

양효숙 전도사는 1964년 1월 육군사관학교교회에서 전임해와서 8년 8개월간 그 책무를 다하며 1971년 7월 예장 여교역자회 창립총회에서 부회장에 피선되기도 했다. 연동교회 여전도회의 구심점이었던 양 전도사는 서울동노회 소속 영암교회로 갔다.

뒷 줄 : 김명수 안병오 이지연 심근순 원정옥 장희순 우복순 함유순 유정순 김기환
가운데 줄 : 정성애 정정자 이소근 이정숙
앞 줄 : 방순영 이열희 양효숙 신의경 송영애 심정희